



부단한 실력연마로 모두가 거듭 나아 합니다

■ 편집부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에겐 향기가 있다.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간절한 염원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이다.

4월에 만난 환경인, 李丙憲 관리인. 처음 만난 그의 분위기는 “외유내강”이었다. 4번 씩이나 낙방하고 5번째 시험에서 기어이 환경기사자격증을 취득했고, 50을 넘은 나이에도 3번이나 낙방한 기술사 시험에 재도전 하려는 그야말로 집념의 인물이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학문엔 왕도가 없는 법인데, ‘나이’를 거론한다는 게 오히려 군더더기가 될 듯싶다.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다.

“경쟁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부단한 자기개발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국가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를 부여받기위해 환경관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환경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李관리인은 일신방직주식회사 광주공장에서 공무과 원동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주가 고향인 그는 한때 공무원 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곳 일신방직엔 16년 동안 몸담아오고 있다. 부지런하고 욕심많은 李관리인은 대기 1급, 수질 2급 자격증 이외에도 그는 열관리기능사 1급, 원동기 취급기능사 1급, 위험물취급

기능사 2급등... 여러 자격증을 갖고 있다.

언제나 책을 갖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공부하는 학구파라는 소문을 입증이라도 하듯, 그날도 그의 손엔 책이 들려져 있었다.

“지금은 시험이 일년에 2번씩 치뤄지고 있지만, 제가 자격증을 취득하던 '78년도만 해도 1년에 1번밖에 응시기회가 없었지요. 그렇게 재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집념이었지요...”

4번씩이나 낙방하고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주관리인은 지난 세월을 관조하듯이 그렇게 웃어 보인다.

광주·전남협회의회의 최고참인 그는 후배들이 문의하는 공법상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기도 하고, 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캠페인, 예를 들어 무등산보호캠페인같은 행사때면 단골손님으로 참가하는 후배 관리인들의 귀감이 되는 선배이기도 하다. 환경관리인 스스로가 꾸준히 실력을 연마해 거듭 태어나야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부득이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지난날의 아쉬움을(대학 3년 수료), 지난 87년에 개방대학을 수료함으로써 채웠던 것이나 기술사시험에 4번째 응시하려는 것 역시, 부단한 자아개발의 몸짓이기도 하다. 이 모두가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는 선택이며,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자



▲예배를 마친후 아내와 함께한 어느날

그는 후배들이 공법상의 문제점을 물어오면 자세한 설명을 아끼지 않는가하면 협의회가 주최하는 캠페인엔 결코 빠지는 법이 없는 맹렬파, 학구파 환경관리인이다.

아의 실현이라는 소박한 진실을 새삼 일깨우는 듯 싶다.

“우리 환경관리인들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그런데 현행 법령상의 양벌규정말입니다.……, 환경관리인들에게 권한부여라는 의미는 있지만, 개선해야할 소지가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건의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그야말로 딱 부러지게만 하면 된다고들 하지만, 그 조직의 고용인이라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역시 양벌규정의 폐해와 한계를 지적한다.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활동과 투자를 비생산적인것으로만 생각하는 기업의 인식전환이 없으면 환경오염방지란 요원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오염방지비용이 곧 제품생산비라는 인식이 정착될 때 비로소 환경관리인들이 양벌규정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관리인은 국민들의 환경의식 수준의 어느정도 계도에 도달했으니만큼 현재의 문제점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낙관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회사측의 협조로 환경 업무처리를 잘 해나가고 있다는 P,R도 잊지않고 덧붙였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의 신앙심을 드러내듯 “믿진 것이 양보하며 살자”는 것이 인생관이라는 주관리인은 어느덧 장성한 남매가 제몫을 하는 것이 대견스러워 보이는 평범한 아버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는 성실한 직장인으로서, 또 자상하고 든든한 선배로서, 인생의 보람은 노력의 땀을 흘리는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평범치 않은 보통사람이다.

산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 더구나 열심히 사는것은 더욱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